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 조주의 돌다리를 아는가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자가(自家)의 본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소 잡는 칼 따위는 쓰지 않아.”

問 如何是自家本意 師云 老僧不用牛刀

자가(自家)는 자기 자신을 말한다. ‘본뜻’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다. 혹은 자기의 본뜻을 불가(佛家)의 본뜻으로 볼 수도 있다. 불교의 핵심 진리이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곧 불교의 핵심이 되므로 자가본의(自家本意)는 이 두 가지에 다 통한다.

자가의 본뜻에 대해 조주 스님은 소 잡는 칼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연한 말이다. 불교는 살생을 하지 않는 종교이므로 “우리 가(家)는 소 잡는 칼을 쓰지 않아!”라고 말할 것이므로 이것은 있는 그대로 대답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외면적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 그것은 내가 이리저리러니 하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면 그것은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불교의 화두를 해설하는 것과 같고, 선의 중심적 사상을 말해버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그런데 조주 스님이 설사 해설한다고 해도 그것은 절대 도의 본질일 수 없다. 왜냐하면 도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벌써 어긋나 버리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는 마음을 말한다. 조주 스님이 소 잡는 칼 따위를 쓰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家)의 본뜻인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오랫동안 조주의 돌다리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단만 와보니 도독질한 외나무다리만 보일 뿐입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대는 단지 도독질한 외나무다리만 보았을 뿐 조주의 돌다리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조주의 돌다리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건너와! 건너와!”

또 이르되,  
(앞의 문답과 같은데 다만 끝의 대답이 아래와 같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당나귀도 건너주고 말도 건너준다.”

問 久嚮趙州石橋 到來只見掠子 師云 闍黎只見掠子 不見趙州石橋 云 如何是石橋 師云 過來過來 又云 度驢度馬

조주(趙州)라는 지역에 도착하려면 유명한 석교(石橋)를 하나 건너야 했다. 그 석교(石橋)의 제작자 이름이 이응(李膺)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한다. 조주 스님은 원래 중심(從?)이라는 범명을 갖고 있었다. 중심 스님이 80세 경에 조주 지역 동쪽 관음원에 기거하면서 40년을 교화

하자, 사방에 유명해졌다. 사람들은 중심 스님이 조주(趙州)에 산다하여 조주 스님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조주 스님의 교화방편은 매우 뛰어나 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하여 사람들이 올 때와 갈 때 다르므로 사람들은 조주의 돌다리가 매우 훌륭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하루는 한 남자가 관음원을 뺨 둘러보고 나서 돌다리는 고사하고 다만 약박자(掠子; 훑은 다리)만 보인다고 말했다. 다리는 사람을 교화하는 실법이나 방편을 말하고, 훑었다는 것은 다만 옛 사람의 것을 가지고 가르칠 뿐이라는 말이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그것은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뿐 아직 조주의 돌다리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고 핀잔을 준 것이다. 이 말에 학승은 정색하고 무엇이 조주의 돌다리냐고 물은 것이다.

조주 스님이 앞에 대답한 것은 주저 없이 이쪽, 붓다의 세계로 건너오라는 말이다. “너는 바로 부처야. 무엇을 망설이는가? 너는 달리 무엇을 바꿀 필요 없어. 부처가 되겠다고 수행할 필요도 없다. 다만 이리 건너와서 바로 부처의 길을 가라. 그대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는 붓다여! 망설이지 말고 이쪽으로 건너오라”라는 뜻이다.

두 번째 조주 스님의 대답인 당나귀도 건너가고 말도 건너간다는 것은 조주 스님의 다리는 반드시 말같이 고귀하고 똑똑한 자만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말이 되지 못한 당나귀와 같은 자도 다 섬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조주 스님은 사람을 가려서 제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고 깨닫게 한다는 자기의 가풍을 내보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가 못났건 잘났건 이미 선천적으로 부처이기 때문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 왕법은 몽둥이를 제일로 삼는다 <붓다차리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연일 언론은 선거이야기로 분주하다. 사람들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해갈지를 지켜보고 있다. 나 역시 선거 관련 보도를 자세히 경청한다. 그들이, 아니 누군가는 내 속에 맺힌 한(恨)을 풀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 역시 그래서일지 모른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선거를 통해서 자기 뜻이 어느 정도는 구현되기를 꿈꾼다. 세상살이의 험겨움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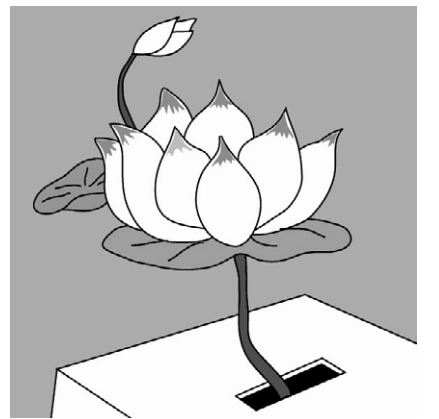
하지만 지금까지의 평가는 그렇게 후하게 줄 수 없는 형편이다. “혹시나 싶었지만, 역시나...”라는 사실을 매번 실감하기만 했다.

왜 그럴까?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니고, 민주주의 역시 사회제도의 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인간사의 꽃이 될 수 없는 까닭은, 왜 선거가 있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게 된다. “서로 내가 해야 한다”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의 투쟁이 있다. 그러한 투쟁을 폭력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비폭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그것이 선거다.

왜 그럴까? 권력은 타자의 배제에 있기 때문이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독점하는 것, 그것이 권력이다.

그렇게, 타자와 공유하기 보다는 혼자만 독식하는 것이 정치이다. 그러니 어떻게 정치와 구도(求道), 어떻게 왕법과 해탈법이 공존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시여, 저를 붙잡지 마소서. 왕위에 있으면서, 현실의 정치를 행하면서도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는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고타마 싯다르타 태자는 하셨던 것이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붓다차리타>의 시인 아쉬바고사(阿濕波)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의 욕심이 투쟁하는 현장에서 나온 민주주의가 마냥 아름답지 못한 까닭이다. 사실 민주주의는 나의 권리를 타인에게 미워주는 양보주의나 그것을 내려놓는 포기주의의 보다는 못한 제도이다.

그것들이 더 좋지만, 그럴 수 없으니 아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이 선거이다. 그것이 정치고,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런데 불교는 양보주의와 포기주의를 터부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코 불교는 민주주의일 수는 없다.(독재주의를 지지하지 않음은 두말 할 나위없지만...) 민주주의의 그 이상이다.

“해탈법은 적정을 제일로 삼는 곳에 있으며, 왕법은 몽둥이를 제일로 삼는 곳에 있다”는 고타마 싯다르타 태자의 말을 <붓다차리타>는 전하고 있다. 놀라운 통찰력이 아닌가. 왕법(rājadhama), 즉 정치의 본질이 ‘몽둥이’에 있음을 그 시대의 한 정초인 이미 눈치 채고 있었다. 몽둥이는 권력이고, 권력은 폭력이다.

그렇게 해탈법과 왕법 사이에 택일을 요구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출가하신 스님들의 일이라 치부할 수도 있으리라. 과연 우리의 스님들은 이 말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해탈법을 추구하기에는 왕법의 세계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까? 마음의 평화를 제일로 삼는 해탈법을 추구함으로써,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오히려 맑음을 선물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그 문제는 스님들께 맡겨두기로 하자.

정작으로 난관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세속을 살아가는 우리는, 고타마 싯다르타조차 어렵다 했던 왕법과 해탈법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렇진대 어느 만큼의 깊이와 넓이로 왕법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할까? 이에 대한 해답 역시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이다. 왕법의 세계이다. 그 다음에 현기증이 나는가? 그 너머의 세계에 해탈법이 있는 이유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6>

# 사성제-집제(集諦)

# 모든 괴로움의 원인 갈애가 모인 것

뚜렷한 증상도 없는데 몸에 이상이 오면 사람들은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다. 하지만 ‘이유 없이’ 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원인을 찾기 힘들어서 알 수 없을 뿐, 몸이 아프다면 반드시 그 원인이 존재한다.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제가 말할 증상은 없지만 스트레스, 과로, 불규칙한 생활, 나쁜 식습관 등을 계속하다보면 지금까지는 건강해서 견뎌왔던 몸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증세를 보이게 시작한다. 이것이 큰 병의 발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큰 병은 몸의 작은 이상증세로부터 출발한다. 몸의 이상증세는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스는 보통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는 경우가 많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생존 혹은 목표의 달성을 위해 과로를 하고, 그러다 보니 불규칙

한 생활과 안 좋은 식습관이 생기게 된다. 여기에는 다시 여러 개의 원인이 달라붙어 작용하고 있고, 그 원인 속에는 또 다른 원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렇듯 병을 포함한 모든 괴로움에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다. 이 인과의 과정을 모를수록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거나 그저 막연히 생각하며 괴로움을 더 키우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된다. 이러한 고통의 다양한 원인을 부처님은 집제(集諦)로 설명했다. 집제의 집(集)은 산스크리트어로 삼우다야(samudaya)라고 한다. 삼우다야는 결합·모임·합체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즉 고통의 원인은 ‘모이는 것’에 의해 생긴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모여 고(苦)를 일으킬까? (사제경(四諦經)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으로 ‘도처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구해 멈추지 않는 갈애(渴愛)’라고 기록돼 있다. 바로 이 갈애가 모여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다.

갈애의 애(愛)는 ‘집착’을 가리킨다. 갈증과도 같은 맹목적인 욕망이기도 하다. 이 갈애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이롭고, 기쁘고, 즐거운 것을 추구하게 한다. 부와 명예를 얻음으

로 갖게 되는 이로움은 현실세계에서 큰 힘을 발휘한다. 상상만 해도 자신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일시에 해소될 것 같이 여겨질 것이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사막에서 물을 찾듯 집착하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한다.

이와 같은 갈애에는 욕애(欲愛)·유애(有愛)·무유애(無有愛)의 세 종류가 있다. 먼저 욕애는 색(色; 물질)·성(聲; 소리)·향(香; 향기)·미(味; 맛)·촉(觸; 감촉)의 다섯 가지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번뇌이다. 유애는 말초적인 욕애보다는 한 차원 높은 욕망이지만 이것 역시 자기중심적인 갈애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유애는 비존재에 대한 애착을 의미한다. 비존재란 허무(虛無)를 가리킨다. 부처님 당시의 인도에서는 죽은 후에 자신을 포함해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갈망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허무의 세계가 있기를 바라는 욕망을 무유애라고 한다. 따라서 불자들은 원하는 대상이 정신세계에 속하는 물질세계에 속하는 그로인해 결과적으로 고통이 따른다면 그것은 그저 갈애번뇌(渴愛煩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前 본지기자

## 빙의(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제 전문도량

현오 스님 퇴마사

###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제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NAVER **Do**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포교원(금)안내**

- ◆ 위치: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 가액: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 시설비 1천만원

**010-9229-3801**